

# 나토, '중국·대만 갈등' 정상회의 주요의제로

### 아시아 나라들 '파트너' 자격 초대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 시도 공동성명 '중국의 도전' 명시...사무총장 기고문 "독재국가" 직격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테이블에 대한해협 갈등이 사실상 주요 의제로 올랐다. 나토가 '글로벌 양강' G2의 한 축으로 떠오른 중국 대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나라들까지 '파트너' 자격으로 초대, 서구 중심의 기존의 틀을 깨고 태평양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크게 떠올랐다"며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유럽-북미 군사동맹 의제에 우크라이나만이 주요 안보 이슈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회의장에 함께 자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모두 입을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은 태평양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수석 정책분석가 미르나 갈릭은 4개국 초청을 가리켜 "나토는 인태 지역에 갖는 관심이 있어서 중국이 동맹에 제기하는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나토 소속 31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개막일인 이날 발표한 총 90개항의 공동성명에서 6개 항목을 중국 관련 이슈에 할애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전략, 의도,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 불투명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세계에서 입지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적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에는 열려있지만,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등 비대칭적 위협과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악의적 사용에는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태평양 연해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나는 한국, 일본, 태평양 국가와 논의한 것을 당신에게 완전히 알려왔다"며 "유럽에서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NN은 이번 회의에 청진 4개국이 관련 의제에 일찌니 접근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윤 대통령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의 인식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4개국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CNN은 "스톨텐베르그가 '대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섬을 본토에 통일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곳의 자치적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교점"이라고 부연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또 "중국을 포함한 독재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내가 올해 초 방문한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오늘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일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 이익을 거래하지 말고 이런 도전에 대해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흐름 속에 나토는 일본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프랑스의 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같은 조치는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프랑스가 '나토는 글로벌 동맹이 아니다'라며 기존 북미-유럽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태평양 양방국들과 합동훈련 등 군사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기고문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의 지역 동맹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세계적"이라며 태평양 국가들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이유를 설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CNN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내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나토 31개국, 우크라 가입절차 간소화 합의

### 실질적 가입 위한 시한은 명시 안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절차 축소에 합의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 적용을 제외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MAP은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향후 안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절차가 개시된다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 나토를 합류한 핀란드의 경우에도 MAP 적용이 면제돼 신청 11개월 만에 정식 회원국이 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입을 위한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데 미국, 독일 등 다수의 회원국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이 합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첫날 정상회의에서 31개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중국의 강압적(coercive) 태도에 맞서(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나토는 전했다. /연합뉴스

## 프랑스 '경찰력 남용' 폭동 손실 9천300억원 발생

프랑스에서 10대 운전자가 경찰관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일어난 폭동으로 6억 5000만유로(약 9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보험연맹은 지난 2주간 프랑스 곳곳에서 발생한 폭동에 따른 보험금 청구 건수를 1만1300건, 청구 금액을 6억5000만 유로로 집계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공공기관 등 건물을 공격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하면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천여개 상점이 약탈당했으며 공격받거나 파손된 은행 지점이 400곳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와 버스 등 약 6천대가 불에 탔고 경찰서와 학교, 우체국, 도서관 등 건물 1100여 곳이 화재 피해를 보거나 파손됐다.

프랑스보험연맹은 보험 청구액의 55%는 상업 부동산, 35%는 지방정부 부동산에 대해 청구된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 10대 소년들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폭동에서 차량 방화와 파손이 보험 청구의 82%를 차지해 전체 피해 규모가 2억400만유로(약 2천900억원)였던 것과 차이가 난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수개월간 이어진 연금제도 개편으로 촉발된 폭력 시위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보다 앞서 2018~2019년 노란조끼 시위에 따른 비용은 약 2억유로(약 2800억원)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 러 전쟁범죄자 피살

### 본토 공원에서 권총 맞고 즉사

우크라이나 전쟁 전범 명단에 오른 러시아 해군 퇴역장교가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하던 중 암살됐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퇴역 장교 스타니스라프 르지츠키(42)가 지난 10일 새벽 러시아 남부 도시 크라스노다르의 한 공원에서 조깅에 나섰다

다가 복면을 한 암살범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 당국은 르지츠키가 마카로프 권총에 7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성명을 텔레그램에 발표했다.

르지츠키는 러시아 해군 중령으로서 흑해 함대에 소속된 잠수함 크라스노다르함의 함장을 지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잠수함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 빈니차 도심을 공격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 이 공격에 크라스노다르함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민간인 2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39명이 실종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암살 다음 날인 11일 전 우크라이나 카라테연맹 회장 스타니스라우 테니스우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 마윈 자산, 전성기 대비 '반토막' ... 38조6천억원 추정

### 엔트그룹 평가가치 대폭 하락

중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의 핵심 표적이었던 엔트그룹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창업자 마윈의 자산이 5조원 넘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

수'를 인용해 마윈이 보유 중인 엔트그룹 지분 9.9%의 평가가치가 약 1년 전보다 41억 달러(약 5조3천억원)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엔트그룹이 최근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내놓은 기업 평가가치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액 추정치 평균, 투자기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엔트그룹이 최근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히며 내놓은 평가가치는 5671억위안(약 102조원)으로 2018년 당시보다 40% 낮았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 평가한 기업가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638억 달러(약 82조2000억원)였다.

또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수석 애널리스트 프랜시스 찬은 엔트

그룹의 기업 평가 가치를 240억~600억 달러(약 30조9000억~77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엔트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이 2020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난 만큼 이익 기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당국 규제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때문에 기업공개(IPO) 재추진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창업자로 한때 중국 최고 갑부 자리를 지켰던 마윈의 자산은 전성기 때의 절반에 못 미치는 300억 달러(약 38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